



네 생각은 어때? 하브루타 꼼꼼 강좌

하브루타 질문 만드는 방법

하브루타의 핵심, 질문

하브루타의 핵심은 질문 만들기과 질문하기이다. 수많은 사람이 사과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지만 뉴턴만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질문을 했다. 뉴턴이 '사과가 왜 떨어지는가?'라는 질문을 가졌기 때문에 '만유인력의 법칙'이 발견되었다.

질문을 통해 새로운 걸 얻게 된 또 다른 예를 보자.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타국에 뿔뿔이 흩어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했다. 귀금속이나 돈을 집에 두고 나가면 도둑맞기 십상이었고 길을 가다가 강도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귀금속이나 현금을 안전하게 관리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 결과 '은행'과 '수표'라는 제도를 창안했다.

현대에 이르러 월말에 은행에 가면 사람들이 많아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생겼다. 그로 인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불편을 없앨 방법이 있을까?'라는 질문이 '번호표 시스템'을 만들어 냈다.

이처럼 인류 문명이나 생활 방식은 질문을 통해 발전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질문은 '왜?'라는 의문과 답을 찾기 위한 생각, 즉 탐구의 시작이다. 고도의 사고력을 기르는 하브루타의 대화, 토론, 논쟁도 질문이 시작이다. 하브루타 하는 과정에서도 계속적인 질문이 나와야 두뇌가 활발하게 움직이는 하브루타가 가능하다. 그래서 독특하고 다양한 질문을 만드는 능력이 중요하다. 질문을 만드는 능력은 결코 이해나 주입식으로 길러지지 않는다.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만 길러진다. 서적과 인터넷을 살펴보면 과목별, 유형별로 좋은 질문 만드는 방법들이 대단히 많다. 그러나 짧은 시간에 좋은 질문을 만들어 내는 훈련을 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나라도 유·초·중등 교육 과정에서 질문과 토론 수업을 강조한 것은 이미 오래 되었다. 그러나 교사가 질문하고 학생이 답하는 형태의 수업이 대부분이다. 유아 교육에서 '이야기 나누기'가 있지만



▲ 뉴턴은 당연해 보이는 현상에 질문을 품었다.

이 역시 교사가 질문하고 유아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유아들의 경우, 답을 말하게 하는 질문을 하기보다 유아들 스스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아들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아기는 쉽고 다양한 질문을 만들 수 있도록 훈련하기에 적합한 시기다. 이런 훈련을 하면서 점차 차원 높은 질문 만들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부터 궁금한 것을 질문으로 전환하여 말하게 하는 실제 사례와 방법을 소개해 보겠다.

궁금한 것을 질문으로 전환하기

첫 번째 방법은 궁금한 것을 질문으로 만들어 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봄에 꽃이 많이 피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해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요?

* 유아들의 의견을 칠판 좌측에 쓴다. 유아들이 의문문으로 말해도 긍정문으로 쓴다.

2. 궁금한 것을 질문으로 만들어 본다.

* 칠판에 쓴 아이들의 생각을 하나씩 읽어 가며 질문으로 전환하게 하고, 칠판 우측에 유아들이 만든 질문을 쓴다.

봄에 어떤 꽃들이 피는지 궁금해요.	→	봄에 어떤 꽃들이 필까요?
꽃들이 왜 봄에 많이 피는지 궁금해요.	→	꽃들이 왜 봄에 많이 필까요?
겨울에 피는 꽃은 없는지 궁금해요.	→	겨울에 피는 꽃은 없을까요?
봄에 꽃이 피면 어떤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요.	→	봄에 꽃이 피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3. 질문으로 전환하기 전의 궁금한 내용과 질문으로 전환된 내용을 큰 소리로 따라 읽게 한다.

4. 질문 중에서 유아들이 가장 궁금하게 여기는 질문이나 교사가 볼 때 가장 독특한 질문 2~3개를 선택하여 짝과 토론하게 한다.

질문 만드는 생각의 틀 만들기

육하원칙이 잘 나타난 우화나 사건의 사례 등을 칠판에 써 주고 큰 소리로 따라 읽게 한다. 글자를 손가락으로 짚어 가며 따라 읽게 하면 더 효과적이다. 높은 사고의 작용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에 가장 많이 반응하는 신체 부위는 손과 입, 그리고 발이다. 또한 기억력, 사고력을 주관하고 다른 영역으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조절하는 전두엽의 70%가 손과 입, 발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손가락으로 짚으며 큰 소리로 읽는 것은 손과 눈, 그리고 입과 귀, 뇌가 유기적으로 활성화되어 집중력, 기억력, 분석력을 극대화시킨다.



▲ 두뇌의 활동을 활발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1. 큰 소리로 따라 읽게 한 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생각하게 한다. 이 때 생각하는 시간, 즉 준비 시간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이솝 우화 ‘여우와 신 포도’ 이야기이다. 다음 이야기를 들려 주고, 그 내용을 육하원칙에 따라 질문하여 유아가 정리할 수 있도록 해 보자.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산길을 걷다가 탐스럽게 익은 포도송이를 발견했다. 여우는 포도를 먹기 위해 힘껏 뛰어 올랐지만 키가 닿지 않았다. 아무리 뛰어 봐도 포도를 먹지 못한 여우가 중얼거리며 다시 길을 떠났다.

“저 포도는 엄청 시어서 못 먹을 거야.”

흥!
먹어보나마나
엄청 실 거야!



2. 이야기를 듣고 육하원칙에 맞게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누가 있었나요?	여우요.
언제였지요?	어느 날이요.
어디였지요?	산속이었어요.
여우가 무엇을 했지요?	포도를 보고 따 먹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했지요?	폴짝폴짝 뛰었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포도송이가 높이 달려서 따먹지 못했어요.
왜 여우가 포도를 따먹으려고 했을까요?	포도를 좋아해서요. 배가 고파서요. 포도를 처음 봐서 신기해서요.
왜 여우가 먹어보지도 못한 포도를 먹어나마나 신 포도일 것이라고 중얼거렸을까요?	따먹지 못한 것이 창피해서요. 배가 고픈데 약 올라서요. 기분이 상해서요.

3. 위 대화 내용을 토대로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짝과 질문하며 토론하게 한다. 육하원칙의 요소를 암기시킬 필요가 없고, 각 요소를 다 포함지 않아도 되며 순서를 바꿔서 토론해도 좋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유아들에게 육하원칙의 요소에 따라 질문을 만들 수 있는 사고의 틀이 형성된다. 그런 틀이 형성되면 텍스트를 읽는 과정에서 머릿속에서는 질문이 거의 동시에 만들어진다. 이러한 학습이 이루어질 때 좀 더 높은 차원의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다.



전성수 교수님과 함께 하브루타를 연구하여 우리나라에 최초로 하브루타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브레멘+부설 하브루타 교육 연구소입니다. 유아 및 초중고 학생은 물론 학부모나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브루타 교육에 힘쓰고 있으며 하브루타 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지금도 끊임 없이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